

# 우익의 자기 견해 피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

무산자

우리는 가끔 해충처럼 들어오는 우익의 견해 피력 내용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나열될 다섯 가지 유형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는 넷우익의 자기 견해 피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 ■ 과학 자체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유형

제 경험상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국내에서 지배적으로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 우익의 세계관은 과학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시적으로까지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시적으로도 과학을 부정합니다.

우익들도 감각기관은 있어서 그런지, 자기들 주장에 그 어떠한 과학적 타당성도 없다는 것을 우연히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등장하는 전문 서적에서 이들 주장의 일부분이라도 단 한 치의 권위를 실어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자기계발서, 또는 그 주장 진위가 매우 의심되는 서적, 그리고 극우 유튜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익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합리화하는 데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부르주아 과학계에서조차 자유의지 개념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부 신학자나 철학자에 국한됩니다.

지구 온난화 허구설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국주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과학자를 양성해서 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자연과학계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인종주의 등을 정당화하는 갖가지 견해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전문가적 견해도 찾아볼 수 없거나,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서 우익의 전술은 불가피하게 과학 일체에 대한 회의라는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우익에게 이제 과학적 연구나 그 성과는 그 타당성에 있어서 종교나 극우 유튜버의 말 한 마디와 동격입니다. 특히 우익 대다수가 도저히 일말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가지각색의 음모론을 신봉하는데, 이러한 류의 음모론 최대의 적이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익 최대의 적이 과학으로 된 셈입니다.

사회를 바라봄에서 과학을 부정하는 우익에게 남은 최종 산물이란 ‘레드필 이론’, ‘설거지론’, ‘주깎 이론’ 등 온갖 역겹기 짝이 없는 오물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한 앞으로도 우익은 정치 활동에서 이러한 쓰레기를 주워섬기는 것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 사용되어 온 개념어의 일반적 내용을 전복하는 유형

과학에 대한 회의와 겹치면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개념어의 내용을 왜곡한 채 개념어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언어독해능력이 심히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는, 나치즘은 ‘민족사회주의’이기에 나치즘은 사회주의이며, 따라서 나치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소련 역시 사회주의 국가였으니, 나치 독일과 소련은 같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파쇼 정권 출범 이래 ‘주 법정 근로시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개념 정의의 내용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 정의를 받아쓰는 것인데, 대개 특정 개념어의 발생적 계기를 파악한 후 그 개념어의 뜻과 내용을 확정하기 보다는, 역으로 그 단어의 직접적 형태를 통해 내용을 유추·확정하기에 이러한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논리학적으로는 유(類)와 종(種) 개념에 대한 물이 해도 한 몫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특히 논리교육 영역에서 한국 교육 체계의 조잡성과 천박함과도 관련됩니다.

## ■ ‘최고급 학회지’에 실린 논문 인용을 강조하는 유형

이러한 양식의 본질이란, 논의되는 영역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은 없어서 아는 것이 없고, 따라서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주장할 여지도 또한 원천 봉쇄하여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논쟁에서 자살 행위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에는 자기배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정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보통 대중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대상에 대한 '최고급 학회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루는 양식을 정당화할 경우, 그 자신도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만약 스스로가 매우 협소한 특정 대상에 대한 '최고급 학회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을 때, 그가 이 지식을 통해 그와는 이질적인 대상에 관해 추론하는 경우, 그 '이질적 대상'에 대한 '최고급 학회지'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는 않은 이상, 그 자신도 이 '이질적 대상'에 대해 단 한 치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식은 자기 스스로도 그 어떤 주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논리에 불과하기에 자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양식으로 일관하는 우익의 경우 그 양태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먼저 자신은 자기 주장에 대해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학회지'에는 우익의 과격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연구가 거의 없으며, 그 반대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문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논문 해석을 할 줄 모른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르주아 학자들마저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익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논법을 고수하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기회를 항상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학벌을 중시하는 유형

이러한 유형은 위의 유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 ■ 잘못된 유비추리에 의존하는 유형

유비추리는 두 사물, 사태가 추상적으로 내함하는 일부 속성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둘이 지니는 관계 역시 서로 동격이라고 간주하는 추론입니다. 헤겔의 《논리의 학》에서는 반성 추론의 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 추론에서 두 사물, 사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이 지니는 관계를 동격으로 놓는 것이 더욱 타당해집니다. 그러나 유비추리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든, 또는 일정 타당하든 그것 자체가 구체적인 인식, 즉 개념적 인식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대개 우익은 잘못된 유비추리를 과도하게 일삼는데, 예로 들 수 있는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익의 거의 모든 정치적 견해가 잘못된 유비추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데나 '내로남불' 딱지를 붙이는 것도 모두 잘못된 유비추리를 뿌리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